

왕국유 예술교육론의 주요논점 고찰*

홍서연**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예술과 감정의 상관성에 주목
3. 문학의 인문적 가치 주창
4. 예술교육의 제도화 방안 제시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왕국유는 철학·미학·문학이론과 함께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사상은 그의 문예이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으로 그 핵심내용은 예술교육론을 중심으로 한 美育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왕국유의 교육과 관련된 논고들로는 「論教育之宗旨」(1903), 「叔本華之哲學及其教育學說」(1904), 「孔子之美育主義」(1904), 「文學與教育」(1904), 「教育雜感四則」(1904), 「教育偶感四則」(1904), 「尼采氏之教育觀」(1904), 「述近世教育思想與哲學之關係」(1906), 「教育家之人希爾列爾」(1906), 「去毒篇」(1906), 「奏定經學科大學文學科大學章程書後」(1906), 「人間嗜好之研究」(1907), 「古雅之在美學上之位置」(1907), 「論小學校唱歌科之材料」(1907), 「霍恩氏之美育說」(1907), 「教育小言十二則」, 「教育小言十則」, 「教育小言十三則」, 「教育普及之根本辦法」 등이 있는데 이들 논고의 비중이 왕국유의 문예관련 전체 논고 가운데 약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

* 본고는 2015년 11월 7일 중어중문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기초로 수정·보완한 것임.

** 高麗大 中文科 講師

어 주목된다. 또 이들 논고들의 발표 시점이 1903년부터 1907년에 분포된 것으로 보아 교육에 대한 왕국유의 관심이 이미 철학·미학 연구와 동일한 시기에 진행되었음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왕국유가 본격적으로 중국문학 연구에 종사했던 1907-1913년에 선행하는 시점으로 이를 통해 교육과 관련된 그의 관점들이 그의 문학기론수립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¹⁾

국내학계의 경우 아직까지 그의 교육론, 특히 교육론이 중심을 이루는 예술교육론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부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왕국유의 문학기론 연구에 있어 기존 연구 대부분이 주로 그의 철학이나 미학 사상과의 연계 속에서 논의되었을 뿐 교육론과의 상관성에 대한 검토는 전무한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왕국유의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는 2000년도에 들어 그의 美育思想을 중심으로 조명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석사논문 7편, 소논문 12편 등 약 20 여 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철학·미학과 연계성 속에서 美育思想 자체에 대한 논의에 그치고 있을 뿐 문학기론과의 상관성에 대한 검토는 없다. 이에 필자는 향후 『人間詞話』를 중심으로 전개된 境界說 등 그의 문학기론과 교육론, 특히 문학기론과 예술교육론 사이에 존재하는 이론적인 주장들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본고를 착수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왕국유의 예술교육론에 나타난 주요한 논점들을 검토해 재구성해 보았다.

2. 예술과 감정의 상관성에 주목

교육에 대한 왕국유의 초기 논의는 1903년 『教育世界』 56호에 발표된 「論教育之宗旨」를 시작으로 「叔本華之哲學及其教育學說」(1904), 「孔子之美育主義」(1904), 「文學與教育」(1904), 「教育雜感四則」(1904), 「教育偶感四則」(1904), 「尼采氏之教育觀」(1904) 등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특히 「論教育之宗旨」에서는

1) 이와 관련해 왕국유 문학기론의 핵심성과라고 할 수 있는 『人間詞話』와 『宋元戲曲考』의 저술과 발표가 각각 1908-1909년 및 1913년이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또 실제로 그의 문학기론주장들 곳곳에서 교육논고들에 나타난 주요논점들이 발견된다.

이미 '미적교육' 혹은 '예술교육'으로 번역될 수 있는 '美育'이란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왕국유의 관심이 철학과 미학을 연구한 시기와 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²⁾ 아울러 왕국유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완전한 인간'을 제시하고 있음도 주목된다.³⁾

교육의 종지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데 있을 따름이다. 무엇이 완전한 인간인가? 인간의 능력이 발달하지 않음이 없고 조화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⁴⁾

왕국유에게 있어 '완전한 인간'이란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내재된 모든 잠재적인 능력을 조화롭게 발현시키는 인간임을 알 수 있다. '완전한 인간'의 육성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왕국유의 생각은 아래 예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智·情·意 세 가지는 각기 독립된 것이 아니고 서로 얽혀있는 것이다. 예컨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당위성을 아는 것은 知요, 하고자하는 것은 意인데, 그것이 작동되는 앞뒤로 또 고락의 情이 수반된다. 이 세 가지는 분리해서 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을 할 때 도 구별할 수가 없다. 어떤 학과(과목)는 덕성교육과 지성교육을 겸하고 어떤 학과(과목)는 덕성교육과 미적 교육을 겸하는가 하면 어떤 학과(과목)는 이 세 가지를 겸한다. 이 세 가지가 병행되면서 차츰 眞善美라는 이상에 도달하고 육체적 훈련을 보탠다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고 교육이

-
- 2) '美育'이란 개념은 왕국유 문예론 텍스트 속에서 때로는 '미적 교육'이라는 광의적 의미로, 때로는 '예술교육'이라는 협의적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美育'과 관련된 왕국유의 논의들을 검토해보면 그 논의의 초점이 '예술교육'에 맞추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가 본고의 제목에서 '미적 교육'이란 용어 대신 '예술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 논의전개의 편의를 위해 문맥에 따라 '미적 교육'과 '예술교육'이란 용어를 유동적으로 혼용했음을 밝힌다.
- 3) 교육가로서 王國維의 면모와 실제 활동은 周一平·沈茶英 著, 『中西文化交匯與王國維學術成就』, 上海: 學林出版社, 1999, 109-135쪽 참조.
- 4) 王國維 著, 姚淦銘·王燕 編, 『王國維文集』第三卷(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7), 「論教育之宗旨」, 57-59쪽: 教育之宗旨何在? 在使人爲完全之人物而已. 何爲完全之人物? 謂人之能力無不發達且調和是也.

할 수 있는 일은 완결된다.⁵⁾

그러나 왕국유 교육사상에서 '완전한 인간'과 함께 주목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완전한 인간'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그가 '미적교육' 혹은 '예술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왕국유는 '완전한 인간'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왜 '미적교육' 특히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일까? 그것은 그가 완전한 인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인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러한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균형은 미적교육, 특히 예술교육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길러진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적교육에 있어 왕국유는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예술의 아름다움에 주목했는데, 그것은 삶의 본질이란 것이 자연과 실제 세계로부터 직접 감지되기보다는 예술작품을 통해 보다 쉽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⁶⁾ 쇼펜하우어의 영향 속에서 짝튼 왕국유의 예술철학은 1905년부터 1907년 사이에 집중적인 칸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칸트의 철학적·미학적 관점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왕국유는⁷⁾ 1906년 「奏定經學科大學文學科大學章程書後」에서 현실적인 삶에 있어 인간이 갈구하는 욕망을 생활에 대한 욕망, 지식에 대한 욕망, 그리고 감정에 대한 욕망 등 세 가지로 분류한 뒤, 이 가운데 감정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바로 예술, 특히 문학이라고 천명하게 된다.⁸⁾

5) 王國維 著, 姚淦銘·王燕 編, 『王國維文集』第三卷(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7), 「論教育之宗旨」, 59쪽: 然人心之智情意三者, 非各自獨立, 而互相交錯者. 如人爲一事時, 知其當爲者, "知"也, 欲爲之者, "意"也. 而當其爲之前(後)又有苦樂之"情"伴之: 此三者不可分離而論之也. 故教育之時, 亦不能加以區別. 有一科而兼德育智育者, 有一科而兼德育美育者, 又有一科而兼此三者. 三者並行而得漸達真善美之理想, 又加以身體之訓練, 斯得爲完全之人物, 而教育之能事畢矣.

6) 王國維 著, 姚淦銘·王燕 編, 『王國維文集』第三卷(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7), 「孔子之美育主義」, 156쪽: 夫豈蜀天然之美而已, 人工之美亦有之. 宮觀之瑰杰, 彫刻之憂美雄麗, 圖畫之簡淡冲遠, 詩歌音樂之直訴人之肺腑, 皆使人達於無欲之境界.

7) 칸트는 인간의 의식을 인식(knowledge)과 욕구(desire)와 감정(feeling) 등으로 분류한 뒤 자연과 예술 및 인간 정신의 자유라는 세 가지 문제를 자기철학의 중심 주제로 삼았다.

8)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奏定經學科大學文學科大學章程書後」: 人於生活之欲外, 有知識焉, 有感情焉. 感情之最高之滿足, 必求之文學, 美術, 知識之最高之滿足是必求諸哲學.

칸트를 통해 비로소 '감정'에 대한 서구 근대철학과 미학의 인간학적 사유를 접하게 된 왕국유는 이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예술과 감정의 내밀한 관계에 눈뜨게 된 것이다.⁹⁾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감정'을 인간 존재의 한 본질로 이해하게 된 왕국유는 '감정'을 '예술'과 연계해 사유하면서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정을 '인간의 도덕적 이성'과 연계시켜 사유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감정과 예술적인 활동이 왜 인간성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처럼 칸트의 영향 속에서 '감정과 예술의 상관성', 특히 '예술과 인간의 도덕적 이성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성'에 주목하게 된 왕국유는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를 오가며 자신의 예술교육론(美育論)을 완성하게 된다.

예술을 위한 자율성의 영역을 어떻게 개척해낼 것인가라는 문제에 집중해 '미적 인 것의 자율성'을 사유의 원동력으로서 삼았던 칸트 미학은¹⁰⁾ 인간에게 내재된 미적 감정과 도덕적 감정과의 관계에 대한 탐구에 있어 쇼펜하우어의 한계에 부딪혀 고민하던 왕국유에게 하나의 돌파구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왕국유는 칸트 철학과 미학의 정교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예술과 감정, 특히 예술과 인간에게 내재된 도덕적인 감정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그 자신의 예술교육론을 수립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접하게 된 칸트의 숭고이론을 통해 왕국유는 숭고미에 대한 체험을 통해 발현되는 인간의 숭고한 감정이 우미의 체험에서보다 한층 높은 차원의 이성인 도덕적인 성찰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교육철학을 완성시켜 간다.¹¹⁾ 미의 범주로서 우미와 숭고에 대한 칸트

9) 서구의 경우 중국문화의 '情'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감정(Gefühl)'이라는 개념은 17세기 말에 와서야 비로소 독립적인 철학용어로 처음 등장했으며 칸트에 의해 비로소 철학적 명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칸트는 '대상에 의해 촉발된 감각은 감정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고 이것이 미의 판단과 관련될 때 간접적이고 반성적이며 성찰적이고 관조적이 된다.'고 정의함으로써 철학적 차원에서 인간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김광명 지음, 『칸트 판단력 비판 연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23쪽, 40-44쪽 참조.

10) 먼로 C. 비어슬리 저, 『미학사』, 서울: 이론과실천, 1995. 242-259쪽, 334쪽. 김광명, 「칸트에 있어 미와 도덕성의 문제」, 『칸트연구』, 제2집, 서울: 한국칸트학회, 1996. 줄고, 「王國維 有我之境·無我之境論의 이론적 특징에 관한 고찰」, 『中國學論叢』 제39집,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년 등 참조.

11) 미적 범주로서 숭고에 대한 논의는 칸트에 와서 본격화되면서 서구 근대 미학의 가장 중요한 논제의 하나가 되었다. 이른바 숭고에 대한 논의에 있어 칸트미학의 가장 두드러지는

의 미학적 해석은 삶에 대한 욕망을 근절함으로써 영원한 윤리적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쇼펜하우어 윤리학의 비현실성에 실망해 있던 왕국유에게 명쾌한 지적 돌파구가 되어 주었다. 칸트를 통해 예술과 감정의 상관성 문제에 대해 보다 명료한 인식을 하게 된 왕국유는 예술의 최종 귀착지가 이성적인 도덕적 세계의 종착지와 합치된다는 칸트의 관점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사유를 완성해 간다.

인간이 어떻게 감각적 조건에서 이성적인 도덕적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라는 왕국유의 관심은 칸트를 거쳐 쉴러의 미적 교육에 대한 생각들과 만나면서 보다 확고히 정립된다. 칸트 미학을 발전시킨 쉴러의 미학사상은 인간에게 내재된 미적 감정과 도덕적 감정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진전된 탐구로 미학과 윤리학의 결합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왕국유에게 한층 선명한 답을 제시하게 된다.

만약 인간이 도덕적 욕구로서 기질의 욕구를 극복해야 한다면 인성의 두 부분은 조화될 수 없다. 물질의 경계 및 도덕의 경계 가운데서 인성의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이 되는 것은 이 내부의 투쟁을 가라앉히고 저열한 감각을 고상한 감각으로 함양시키는 데 있다. 예컨대 칸트의 엄숙론에서 기질과 의무가 대립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최고의 이상은 아니다. 최고의 이상은 아름다운 영혼에 존재한다. 그것의 성질은 고상하고 순결하며 (기질과 의무가 대립하는) 내부의 투쟁을 모른 채 오로지 도덕의 법칙을 즐긴다. 이 성질은 오직 미적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¹²⁾

왕국유는 감각적 인간을 이성적 인간으로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인간을 미적으

특징은 쇼펜하우어와는 달리 숭고감의 내적 본질을 도덕적 반성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미는 구상력과 오성(인식능력)의 자유로운 유희를 특징으로 하는 반면 숭고는 구상력과 이성(도덕능력)의 자유로운 유희이기 때문에 숭고의 감정이야말로 인간의 실천적 이성을 일깨워 도덕적 자각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 12) 王國維 著, 姚淦銘·王燕 編, 『王國維文集』 第三卷(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7), 「孔子之美育主義」, 156-157쪽: 如人必以道德之欲克制氣質之欲, 則人性之兩部猶未能調和也. 於物質之境界及道德之境界中, 人性之一部, 必克制之以擴充其他部; 然人之所以爲人, 在息此內界之爭鬪, 而使卑劣之感歸於高尚之感, 如汗德之嚴肅論中氣質與義務對立, 猶非道德上最高之理想也. 最高之理想存於美麗之心(Beautiful Soul), 其爲性質也, 高尚純潔, 不知有內界之爭鬪, 而唯樂於守道德之法則, 此性質唯可由美育得之.

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파한 쉐러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진정한 인간성의 발현은 고상한 감각을 함양시켜 완성되는 '아름다운 영혼'에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칸트 미학을 기초로 도덕적 의지에 대한 주체의 자발성 문제를 한층 더 강조한 쉐러의 미학을 통해 왕국유는 다른 형태의 지각들은 인간의 정신을 분할시키지만 예술적인 취미만은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정신을 자유로움 속에서 조화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질서와 자유를 결합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이는 곧 인간은 미적 조건 속에서만 인간성의 감각적 측면인 감성과 정신적 측면인 이성 양자를 자유롭고 조화롭게 결합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기도 했다. '인간은 그가 유희할 때에 유일하게 전적으로 인간이다'라는 쉐러의 미학사상과 교육사상을 수용한 왕국유는 이제 예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인간성 실현의 필요조건임을 거듭 확신하며 예술 활동이라는 미적 상황에서만이 인간의 감성과 이성의 대립적 갈등은 화해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즉, 인간은 즐기기 위해 기꺼이 규칙에 복종하는 데서 오는 자유와 필연성의 특수한 결합인 예술적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정신세계를 성숙시키고 고양시킴으로써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왕국유는 인간의 잠재된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힘이 필요하며, 이성은 예술 활동과 같은 다양한 미적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성을 실현시킨다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완성시켜 나가게 된다. 그리고 미적 교육에 대한 쉐러의 생각들은 왕국유의 사유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자의 美育정신과 결부된다.

공자가 뜻을 말함에 오직 증점과 같이 했다. 또 "詩에서 일어나 樂에서 완성된다."라고 했다. 고대 희랍은 음악을 보편적 배움의 한 과목으로 삼았고 근대 셸링과 쉐러가 미적교육을 중시한 것은 실로 우연이 아니다. 요컨대 미적 교육이란 한편으로 인간의 감정을 발달시켜 완성된 아름다움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 한편으로는 덕성 교육과 지성 교육의 수단이 된다. 이는 또 교육자가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¹³⁾

13) 王國維 著, 姚淦銘·王燕 編, 『王國維文集』第三卷(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7), 「論教育之宗旨」, 58쪽: 孔子言志, 獨與曾點; 又謂"興於詩, 成於樂". 希臘古代之以音樂爲普遍學之一科, 及近世希痕林, 希爾列爾等之重美育學, 實非偶然也. 要之, 美育者一面使人之感情發達,

시와 음악이라는 예술적 취미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발달시킴으로써 인간을 보다 완성된 인격체로 나아가게 한다는 공자의 교육철학과 관련된 논의는 1904년 『教育世界』 69호에 발표한 「孔子之美育主義」란 논고에서도 보인다.¹⁴⁾ 여기에서도 왕국유는 인간의 도덕의식을 각성시키고 함양시키는 데는 외부적인 강제나 의무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규율보다는 인간내부의 감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로되는 미적 경험을 통한 성찰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은 인간내부의 감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미적 경험을 통해 비로소 도덕적 인격체로 승화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또 이처럼 자발적이고 내적인 미적 성찰을 통해 함양된 개인의 도덕의식은 개인적 욕구를 초월해 사회적 욕구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한다.¹⁵⁾ 이처럼 쉐러의 ‘아름다운 영혼’이나 공자의 ‘완성된 인격체’는 모두 미적 교육을 통한 미적 감정의 함양을 통해 이성과 감정이 조화된 이상적인 인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왕국유가 추구했던 ‘완전한 인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¹⁶⁾

예술과 감정에 대한 인간학적 사유를 구심점으로 진행된 왕국유의 예술교육론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미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한다. 당시 중국사회의 아편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그것이다. 1906년 「去毒篇」과 1907년의 「人間嗜好之研究」 등은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고들이다.

以達完美之域，一面又爲德育與智育之手段。此又教育者所不可不留意也。

14) 王國維 著, 姚淦銘·王燕 編, 『王國維文集』第三卷(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7), 「孔子之美育主義」, 157쪽: 今轉而觀我孔子之學說, 其審美學上之理論雖不可得而知, 然其教人也, 則始於美育, 終於教育。『論語』曰: “小子何莫學夫詩。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15) 王國維 著, 姚淦銘·王燕 編, 『王國維文集』第三卷(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7), 「孔子之美育主義」, 157쪽: 荀子說其效曰: “樂者, 聖人之所樂也。而可以善民心。其感人深, 其移風易俗。……故樂行而志清, 禮修而行成, 耳目聰明, 血氣和平, 移風易俗, 天不皆寧。”(『樂論』) 此之謂也。故“子在齊聞『韶』”, 則“三月不知肉味”。而“韶”樂之作, 雖絮壺之童子, 視精, 其行端。音樂之感人, 其效有如此者。

16) 王國維 著, 姚淦銘·王燕 編, 『王國維文集』第三卷(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7), 「孔子之美育主義」, 157쪽: 且孔子之教人, 於詩樂外, 尤使人玩天然之美。故習禮於樹下, 言志於農山, 游於舞雩, 嘆於川上。使門弟子言志, 獨與會點。點之言曰: “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咏而歸。”由此觀之, 則平日所以涵養其審美之情者, 可知矣。

이제 한번 묻거늘 중국 국민은 어찌하여 유독 아편을 하는 국민이 되었는가? 요컨대 이 일은 비록 지식이나 도덕과는 절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최종적 원인은 국민에게 희망과 위안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원인은 감정에 있을 따름이다.¹⁷⁾

당시 중국의 사회문제이던 아편 문제와 관련해 왕국유는 그 원인을 희망과 위로의 결핍이라는 감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아편 문제의 원인이 정신적 희망과 위안의 결핍, 즉 감정적 공허감이라는 왕국유의 진단은 1906년의 「去毒篇」을 비롯해 1907년의 「人間嗜好之研究」에도 보인다.¹⁸⁾ 이러한 공허한 감정이야말로 그 어떤 고통보다도 인간을 괴롭힌다고 진단한¹⁹⁾ 왕국유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신적 안정 혹은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종교와 예술을 제시하게 된다.²⁰⁾ 그러나 왕국유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종교보다는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는 예술이 보다 가치 있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²¹⁾ 아편을 금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에 있어 왕국유가 인간 감정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²²⁾ 왕

- 17)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去毒篇(鴉片烟之根本治療法及將來教育上之注意)」: 今試問中國之國民, 曷爲而獨爲鴉片之國民乎? 要之此事雖非與知識道德絕不相關, 然其最終之原因, 則由於國民之無希望, 無慰藉, 一言以蔽之: 其原因存於感情上而已.
- 18)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人間嗜好之研究」: 夫人心本以活動爲生活者也, 心得其活動之地, 則感一種之快樂, 反是則感一種之苦痛, 此種苦痛, 非積極的苦痛, 而消極的苦痛, 易言以明之, 卽空虛的苦痛, 空虛的苦痛, 比積極的苦痛尤爲人所難堪.
- 19)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去毒篇」: 人之有生, 以欲望生也, 欲望之將達也, 有希望之快樂; 不得達, 則有失望之苦痛, 然欲望之能達者一, 而不能達者什佰, 故人生之苦痛亦多矣, 若胸中偶然無一欲望, 則又有空虛之感乘之, 此空虛之感, 尤人生所難堪, 人所以圖種種遺日之方法者, 無非欲祛此感而已.
- 20)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去毒篇」: 其道安在? 則宗教與美術二者是, 前者適於下流社會, 後者適於上等社會; 前者所以鼓國民之希望, 後者所以供國民之慰藉, 茲二者, 尤我國今日所最缺乏, 亦其所最需要者也.
- 21) 周錫山 編校, 『王國維文學美學論著集』(山西: 北岳文藝出版社, 1988), 「文學與教育」, 51쪽: 生百政治家, 不如生一大文學家, 何則? 政治家與國民以物質上之利益, 而文學家與以精神上之利益, 夫精神之於物質, 二者孰重? 且物質上之利益, 一時的也; 精神上之利益, 永久的也, 前人政治上所經營者, 後人得一旦而壞之, 至今之大著述, 苟其著述一日存, 則其遺澤且及於千百世而未沫, 故希臘之有鄂謀爾也, 意大利之有唐旦也, 英吉利之有狄斯丕爾也, 德意志之有格代也, 皆其國人人之所尸而視之社而稷之者, 而政治家無與焉, 何則? 彼等誠與國民以精神上之慰藉, 而國民之所恃以爲生命者, 故政治家之遺澤, 決不能如此廣且遠也.

국유는 예술적 취미를 통한 이성과 감성의 균형 잡힌 함양만이 어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1907년 「人間嗜好之研究」에서 생활에서 실질적 쓰임은 없어도 사람들이 정신적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곧 예술적 취미이며, 공허감을 이기는 정신적 위로로서 예술적 취미만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²³⁾ 예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취미활동이야말로 감성을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일상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²⁴⁾ 예술교육의 가치를 인간감정과 연계해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인식한 왕국유의 예술교육론은 이후 대학내 교과과정에 미학과목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면서 제도화·사회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3. 문학의 인문적 가치 주창

완전한 인간성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성과 함께 감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한 왕국유는 감정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예술 활동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감각적인 단계에서 보다 성숙한 이성적인 인간의 단계로 고양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인식은 1906년 「奏定經學科大學文學科大學章程書後」과 「去毒篇」에서 인간의 감정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현실적 방안으로 예술 활동, 특히 문학 활동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⁵⁾

22)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去毒篇」: 故禁鴉片之根本之道, 除修明政治, 大興教育, 以養成國民之知識及道德外, 尤不可不於國民之感情加之意焉.

23)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人間嗜好之研究」: 嗜好之爲物, 本所以醫空虛的苦痛者, 故皆與生活無直接之關係, 然若謂其與生活之欲無關係, 則甚不然者也.

24)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人間嗜好之研究」: 故苟足以供其心之活動者, 雖無益於生活之事業, 亦驚而趨之. 如此者, 吾人謂之曰嗜好. 雖嗜好之高尚卑劣萬有不齊, 然其所以慰空虛之苦痛而與人心以活動者, 其揆一也.

25) 예술에 대한 관점에 있어 왕국유는 쇼펜하우어의 많은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단, 쇼펜하우어가 음악을 예술의 극치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왕국유는 예술의 정점을 문학이라고 생각했다. 먼로 C. 비어슬리 著, 『미학사』, 서울: 이론과 실천, 1995, 311-317쪽 참조.

예술의 위안 중에서 특히 문학의 위로가 가장 크다. 왜 그런가? 조각이나 회화 등은 그 작품을 손에 넣기가 쉽지 않은데다 좋아함의 병폐로서 물건에 집착하는 폐단이란 참으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문학이란 것은 책을 구하기만 하면 충분하니 그것은 보편적으로 편리해서 결코 다른 예술이 따를 수 있는 바가 아니다.²⁶⁾

문학을 강조한 그의 관점은 1904년의 「紅樓夢評論」과 1907년의 「人間嗜好之研究」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²⁷⁾

예술 중에서도 시, 희곡, 소설 등이 최고봉으로 그들의 목적이 인생을 묘사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한편의 탁월한 걸작을 얻었으니 『홍루몽』이다.²⁸⁾

왕국유가 문학에 선호한 근원에는 문학의 본질을 '언어'와 '삶'이라고 바라본 그의 문학관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문학의 본질을 '언어'로 본 그의 인식 속에는 문학이 지닌 도구의 편리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탁월한 대중성과 보편성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문학의 소재가 '삶'이라는 그의 인식은 문학의 본질이 인간, 특히 인간의 감정과 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통찰이기도 했다. 그가 「紅樓夢評論」에서 시, 희곡, 소설 등 서정문학과 서사문학을 포함한 모든 문학의 주제는 인생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문학의 주제가 삶이자 인간이라는 사실은 철학의 주제가 삶이자 인간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를 매혹시켰을 것이다. 삶과 인간이라는 주제가 철학에서는 이성적으로 접근된다면 문학에서는 감성적으로 접근된다는 사실을 왕국유는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었다.²⁹⁾ 특히 문학의 목적이 인생을 묘사하는데 있다는 그의 주장 속에는 문학의

26)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去毒篇」: 美術之慰藉中, 尤以文學爲尤大. 何則? 彫刻, 圖畫等, 其物既不易得, 而好之之誤, 則留意於物之弊固所不能免也. 若文學者, 則求之書籍而已, 無不足, 其普遍便利, 決非他美術所能及也.

27)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人間嗜好之研究」: 若夫最高尚之嗜好, 如文學, 美術.

28)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紅樓夢評論」: 美術中以詩歌, 戲曲, 小說爲其頂點, 以其目的在描寫人生故. 吾人於是得一絕大著作曰『紅樓夢』.

29) 삶과 인간이라는 주제의 측면에서 문학과 철학의 동질성은 1907년을 기점으로 왕국유가

본질은 인간 감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문학의 가치는 인간에게 정신적인 위로를 주는데 있다는 문학의 본질론과 가치론이 동시에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문학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이성이 아닌 감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그의 관점은 이미 그 안에 인문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07년의 「自序」는 이러한 왕국유의 인식을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내가 철학에 염증을 느낀 지는 여러 날이 되었다. 철학상의 학설은 대개 좋아할 만한 것은 믿을 수 없고 믿을 만한 것은 좋아할 수가 없다. 나는 진리를 알지만 또 그 오류도 좋아한다. 위대한 형이상학, 고상하고 엄숙한 윤리학과 순수한 미학, 이것은 내가 특히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을 만한 것을 찾자면 오히려 지식론상의 실증론, 윤리학상의 쾌락론, 미학상의 경험론에 있다. 그것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좋아할 수 없고, 그것이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믿을 수는 없다. 이것이 최근 2, 3년간의 최대 고민이다. 그러나 요즈음의 취미가 점점 철학에서 문학으로 옮겨가는 것은 문학에서 직접적인 위로를 찾기 위해서이다. …… 요컨대 나의 기질은 철학자가 되기에는 감정이 지나치게 풍부하고 지력은 지나치게 부족하다. 시인이 되기에는 또 감성이 너무 약하고 이성이 강하다. 문학인가? 철학인가? 언젠가 무엇으로 생을 마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두 가지 사이에 있지 않을까?³⁰⁾

철학연구에서 문학연구로 관심의 방향을 선회한 직접적인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 위의 글은 철학과 문학 사이를 오가며 **愛와 信**,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번민하는 철학자와 시인으로서의 왕국유 자화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왕국유에게 감정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중시하는 문학³¹⁾이 보다 큰 정서적 위로를 주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³²⁾ 따라서

철학연구에서 문학연구로 자연스럽게 선회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요인이기도 했다.

30)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自序」: 余疲於哲學有日矣. 哲學上之說, 大都可愛者不可信, 可信者不可愛. 余知真理, 余又愛其謬誤. 偉大之形而上學, 高嚴之倫理學, 與純粹之美學, 此吾人所酷嗜也. 然求其可信者, 則寧在知識論上之實證論, 倫理學上之快樂論, 與美學上之經驗論. 知其可信而不能愛, 覺其可愛而不能信, 此近二三年中最大之煩悶. 而近日之嗜好所以漸由哲學而移於文學, 而欲於其中求直接之慰藉者也. …… 要之, 余之性質, 欲爲哲學家, 則感情苦多, 而智力苦寡; 欲爲詩人, 則又苦感情寡, 而理性多, 詩歌乎? 哲學乎? 他日以何者終吾身, 所不敢知, 抑在二者之間乎?

왕국유가 다양한 예술영역 가운데에서 유난히 문학을 선호한 배경에는 그 자신의 개인적 기질과 경험도 중요한 한 기제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왕국유는 직접 창작과 연구를 경험함으로써 문학이 주는 정신적인 가치를 절감했을 것이며 이로써 한층 더 문학의 인문적인 가치에 경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학의 본질이 이성보다는 감정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것의 인문적 가치가 정신적 위로라는 문학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왕국유의 인식은 1907년부터 1913년까지 중국고전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로 이어진다. 1904년에 작성된 「紅樓夢評論」과 함께 『人間詞話』와 『宋元戲曲考』는 이 시기의 문학 연구 성과를 대표하는 3부작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 중국고전문학에 대한 그의 연구가 詞·曲·小說 등 중국문학사에서 통칭 俗文學으로 간주되던 장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 이들이 각각 小說論·詞論·曲論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왕국유가 서사문학과 서정문학 등 문학의 모든 장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왕국유가 雅文學보다 俗文學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추정컨대 그것은 그가 문학의 본질을 감정이라고 인식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문학의 본질은 감정이며, 문학이라는 예술적 체험을 통한 감정의 연마를 통해 인간은 보다 완숙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속문학의 장르들이 정형화된 아문학에 비해 인간의 감정을 좀 더 진솔하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³³⁾ 실제로 중국의 전통적인 문체론인 雅俗論의 관점에서 보면 아문학은 내용과 형식의 정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속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속성을 좀 더 중시할 수밖에

31) 王國維, 『王國維遺書』 第5冊, 『靜庵文集』(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紅樓夢評論」: 惟美術之特質貴具體而不貴抽象.

32) 유년시절 어머니의 죽음으로 시작된 연속된 가족의 상실은 왕국유가 철학연구를 접고 문학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개인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王國維, 『王國維遺書』 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自序」 참조. 「自序」가 집필된 1907년은 그의 개인사에 있어 특히 비극적인 한 해로 그는 첫 부인 막씨와의 사별 그리고 계모의 사망소식을 연달아 겪게 된다. 1906년, 30세의 왕국유는 이미 부친의 죽음을 겪은 뒤였다. 趙萬里 撰, 『王靜安先生年譜』(臺北: 廣文書局印行, 1971), 40쪽 참조.

33) 줄고, 「王國維의 文體論 고찰」, 『中國語文論叢』 제61집, 서울: 中國語文研究會, 2014년 참조.

에 없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술 중에서도 문학을 중시했던 왕국유의 관점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가 문학 중에서도 특히 시를 강조했다라는 사실이다. 왕국유가 유독 시를 선호한 배경에는 시의 본질에 대한 그의 인식, 즉 철학과 시의 친연성에 대한 그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문학과 철학의 관계에 있어 그 밀접함은 경학에 뒤지지 않는다. …… 특히 문학 중에서도 시라는 장르는 더욱이 철학과 동일한 속성을 공유한다. 그것이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우주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다만 그 해석의 방법에 있어 하나는 직관적이고 하나는 사변적이다. 하나는 돈오적이고 하나는 합리적일 따름이다.³⁴⁾

왕국유는 철학과 시 모두가 인간과 삶을 주제로 삼아 객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동일하다고 여겼다. 철학이 이성적인 개념과 논리를 통한 과학적 사유 방식을 선호한다면 시는 감성적인 이미지를 매개로 관조와 직관의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이 다를 뿐 그들의 관심은 모두 인간과 삶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왕국유에게 있어 시는 철학의 감성적 형태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왕국유는 문학 중에서도 시야말로 삶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생의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감정과 좀 더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했다. 그가 문학 중에서도 시를 감정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해 사유하고 있음은 서사문학과 서정문학의 문학적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구성력’과 ‘興(감정의 진정성)’을 구분해서 지적한 것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³⁵⁾

34)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奏定經學科大學文學科大學章程書後」: 至文學與哲學之關係, 其密切亦不下於經學. …… 特於文學中之詩歌一門, 尤與哲學有同一之性質, 其所欲解釋者, 皆宇宙人生上根本之問題. 不過其解釋之方法, 一直觀的, 一思考的, 一頓悟的, 一合理的耳.

35) 왕국유가 『人間詞話』를 통해 詞體論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면 이를 전후로 발표한 「紅樓夢評論」과 『宋元戲曲考』에서는 소설과 희곡의 문제론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들 저작들을 통해 왕국유가 문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크게 서정문학과 서사문학이라는 두 범주로 이분해 논의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요컨대 1904년에 작성한 「紅樓夢評論」 및 1912에 완성된 『宋元戲曲考』에서는 중국 소설과 희곡의 기원과 발전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사문학의 문체적 특징을 논구한데 반해, 『人間詞話』에서는 詩와 詞를 중심으로 그

쇼펜하우어는 서정시는 소년시절에 짓는 것이고 서사시와 희곡은 장년에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 생각에 서정시는 국민이 유년기에 짓는 것이고 서사시는 국민이 성년기에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희곡은 옛날의 것이 오늘의 것만 못하다. (元曲은 참으로 자연스러움이 많지만 그 사상의 졸렬함이나 구성의 허술함은 천편일률적이어서 먹던 밥을 토해내게 만든다. 현 왕조의 『桃花扇』이나 『長生殿』 등과 같은 여러 傳奇에 이르러서야 발전했다.), 詞는 오늘날의 것이 옛 것만 못하다. 모름지기 하나는 구성을 위주로 하고 하나는 興을 기다려 완성하기 때문일 것이다.³⁶⁾

왕국유는 「文學小言·14則」, 「文學小言·15則」 등에서도 서정문학과 서사문학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그가 문학의 장르적 속성에 해박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詩보다 詞에 집중했던 사실은 그가 시 중에서도 서사시가 아닌 서정시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직접적인 詞창작의 경험과³⁷⁾ 詞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서인 『人間詞話』 등이 이를 반증한다.³⁸⁾ 서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중국 詩史에서 詩보다는 詞가 서정성과 좀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왕국유가 서사문학과 서정문학의 장르적 특징뿐 아니라 詩와 詞의 문체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명료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기원과 발전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서정문학의 문체적 특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36)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未刊稿』(山西: 北岳文藝出版社, 1988), 第8條: 叔本華曰, '敘情詩, 少年之作也. 敘事詩及戲曲, 壯年之作也.' 余謂, 敘情詩, 國民幼稚時代之作, 敘事詩, 國民盛壯時代之作也. 故曲則古不如今. (元曲誠多天籟, 然其思想之陋劣, 布置之粗笨, 千篇一律, 令人嘔飯. 至本朝之『桃花扇』·『長生殿』諸傳記, 則進矣), 詞則今不如古. 蓋一則以布局爲主, 一則須佇興而成故也.

37) 사창작과 관련된 왕국유의 진술은 「自序二」를 통해 알 수 있다. 王國維, 『王國維遺書』 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自序二」: 近年嗜好之移於文學, 亦有由焉, 則填詞之成功是也. …… 因詞之成功, 而有志於戲曲, 此亦近日之奢願. …… 余所以有志於戲曲者, 又自有故. 吾中國文學之最不振者, 莫戲曲若. …… 苟積畢生之力, 安知於哲學上不有所得, 而於文學上不終有成功之一日乎? 한편 『人間詞甲稿』와 『人間詞乙稿』는 왕국유 詞 창작의 결실이다. 『人間詞甲稿』는 당시 2, 3년 동안 지은 詞 61편을 모아 1906년 『教育世界』에 발표한 것이고 『人間詞乙稿』는 1907년 일 년 동안 지은 詞 43편을 그 해 『教育世界』에 발표한 것이다.

38) 『人間詞話』의 일부 실제비평 조목에서 왕국유는 詩經과 楚辭, 李白과 杜甫 등 중국의 역대 주요 詩와 시인을 거론하는가 하면 王士禛이나 嚴羽 등의 詩論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논점을 강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장치일 뿐이다. 따라서 『人間詞話』는 그 주요 비평대상이 詞인 詞論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준다. 『人間詞話·發表本』 第53條는 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정 표현을 더 중시하는 詞의 문체적 특징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주목된다.³⁹⁾ 사의 문체적 특징이 감정과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은 『人間詞話·發表本』 第53條 외에도 『人間詞話·未刊稿』 第8條, 第13條, 第17條, 第29條, 第49條 등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어 왕국유가 시보다 사를 보다 서정적이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詞를 중국서정시의 최고봉이라고 인식하며 사의 문체적 특징을 서정성이라고 규정한 왕국유의 주장은 『人間詞話』를 통해 사의 비평기준을 경계 설로 내세우고 있는 것에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⁴⁰⁾ 나아가 왕국유가 詞중에서도 小令이 중심을 이루는 북송사를, 시 중에서는 시경, 초사, 고시십구수, 그리고 근체시 중에서는 絶句를 가장 높이 평가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近體詩의 체제는 五言·七言絶句가 가장 존귀하고 律詩가 그 다음이며 排律이 최하이다. 대체로 이 排律이라는 문체는 흥취에 기대어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두 가지 경우에 다 적절치 못하니 거의韻이 있는 駢儷體文인 따름이다. 詞 중에 小令은 絶句와 같고, 長調는 배율과 비슷하며, 장조의 「百字令」과 「沁園春」 등과 같은 것이 바로 排律에 가깝다.⁴¹⁾

실제로 이들 詩體들은 모두 각 詩體의 초기 형태에 속하는 것들로 내용과 형식 면에서 아직 정형화되거나 雅化되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게 인간의 감정과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왕국유가 강조한 서정시의 특징을 보다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²⁾ 왕국유가 각 詩體의 후기 형태인 사의 長調나 근

39)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山西: 北岳文藝出版社, 1988), 第53條: 然謂詞格必易於詩, 余未敢信. 善乎陳臥子之言曰: “宋人不知詩而強作詩, 故終宋之世無詩. 然其歡愉愁苦(當作“怨”)之致, 動於中而不能抑者, 類發於詩餘, 故其所造獨工.” 五代詞之所以獨勝, 亦以此也.

40) 왕국유의 境界說은 서사시나 영물시가 아닌 서정시의 비평기준으로서 그 초점이 서정의 진정성에 맞추어져 있다. 참고, 『王國維 境界說 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년 참조.

41) 周錫山 編校, 『人間詞話·發表本』(山西: 北岳文藝出版社, 1988), 第59條: 近體詩體制, 以五七言絶句爲最尊, 律詩次之, 排律最下. 蓋此體于寄興言情, 兩無所當, 殆有韻之駢體文耳. 詞中小令如絶句, 長調似律詩, 若長調之「百字令」·「沁園春」等, 則近于排律矣.

42) 참고, 「王國維의 文體論 고찰」, 『中國語文論叢』 제61집, 서울: 中國語文研究會, 2014년 참조.

체시의 律詩·排律 등을 내용과 형식의 정형화로 인한 서정성의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小令이나 絕句보다 낮게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술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문학은, 문학 장르 중에서도 시를, 시 중에서도 서정시를 중시한 왕국유의 관점은 전적으로 예술에 대한 그의 출발점이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인간학적인 이해였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의 문학론은 필연적으로 인문적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⁴³⁾ 문학교육에 있어서도 왕국유는 특히 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소학교에 중국고전시문과목을 설치하지는 주장이 그것이다.

4. 예술교육의 제도화 방안 제시

미를 완전한 인간성 실현의 필요조건으로 인식했던 왕국유는 감성과 이성의 대립적 갈등은 미적 상황에서 보다 쉽게 화해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예술을 인간 감정의 관점에서 해석한 왕국유의 예술교육론은 이제 이론적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미학 과목을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채택해야하며 소학교에서는 중국고전시문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 등은 바로 왕국유 예술교육론이 이론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적인 실천방안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흔적들이다. 왕국유는 먼저 「奏定經學科大學文學科大學章程書後」(1906년)에서 미의 표준과 문학의 원리를 정하는 것은 오직 철학의 한 분과인 미학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미학의 학문적 독립성을 주장하게 된다.⁴⁴⁾

1901년 교육개혁이 선언된 이후 1901년에서 1911년 사이에 진행된 만청정부의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팔고문은 폐지되고 과거시험과목은 고전, 중국의 정

43) 문학에 대한 왕국유의 인간학적 해석에는 중국고전문학에 내재화된 정치화된 감정이나 규범화된 감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반영되어 있다.

44)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奏定經學科大學文學科大學章程書後」: 且定美之標準與文學上之原理者, 亦唯可於哲學之一分科之美學中求之.

치·역사와 외국의 정치 및 과학 등으로 개편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는 촉망되는 젊은이들의 유학을 지원하게 된다. 1903년 서태후는 張百熙(1847-1907)를 교육위원회의 대표로 임명해 국가교육체계의 기본원칙을 설계하도록 했다. 그리고 일 년 뒤인 1904년 위원회의 임원이던 장지동과 榮慶 등은 신국가교육개혁을 완성시키게 된다. 이 계획안은 일본의 교육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1904년부터 1911년 사이에 중국교육체계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1905년은 중국 교육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난 해이다. 과거시험제도의 폐지와 학부설립이 그것이다. 당시 교육개혁을 추진하던 장지동과 원세개 등이 젊은이들이 과거시험 준비로 막대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목격한 뒤 서양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과거제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학부 설립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 목적은 젊은이들이 중국의 역사·문화 등과 함께 서양의 실용적 지식을 동시에 습득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일찍부터 전통적인 교육체계, 특히 과거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신문학을 동경하며 동문학사에서 서양의 언어와 철학을 공부했던 왕국유는 중국의 전통적인 학술에 순수철학이 결여되었음을 통감하게 된다. 그리고 동시대 대부분의 중국 지식인이 서양의 실용적 지식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철학과 미학을 중심으로 하는 형이상학의 인문적 가치를 자각하며 우주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인식하게 된다.⁴⁵⁾ 그리고 서구의 근대 철학, 특히 쇼펜하우어와 칸트 그리고 셸러를 중심으로 한 독일 근대의 형이상학적 철학체계와 미학을 만나면서 비로소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간학적이고 인문적인 이해의 지평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장지동 등이 개편한 교과과정에 서양철학이 배제된 것에 대해 왕국유가 불만을 표시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근래의 저서와 번역서 그리고 잡지가 이와 같으니 학교에서는 어떠하겠는가? 중등학교 이하에서는 단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줄 뿐 사상과 관련된 것이 없다는 것은 굳이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 京師大學의 본과

45) 王國維 著, 姚淦銘·王燕 編, 『王國維文集』第三卷(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7), 「教育偶感四則」, 60쪽: 夫探宇宙人生之真理而定教育之理想者, 固哲學之事業.

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지만 설령 설립된다 하더라도 南皮 張尙書의 계획에 따라 단지 수다스러운 俗儒를 양산할 뿐이다. 이밖에 사립학교 또한 전문적인 자격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 上海의 震旦學校에만 丹徒 馬良의 哲學講義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삼백년 전 데카르트의 독단적 철학일 따름이다.⁴⁶⁾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철학을 제외시킨 청조의 교육정책에 대한 왕국유의 신랄한 비판은 특히 사범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철학이 배제된 사실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이어졌다.⁴⁷⁾ 물론 왕국유의 이 같은 강력한 비판 뒤에는 교육에 대한 그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다. 왕국유의 교육적 신념은 1904년 교육에 대한 단상을 모은 「教育偶感四則」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그는 '철학은 교육학의 어머니'라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 입각해 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교육의 근본 원칙과 목표를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⁸⁾

현실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왕국유는 1905년 발표된 「論近年之學術界」에 이어 1906년 「奏定經學科大學文學科大學章程書後」에서 장지동이 정한 교과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그 대안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장지동이 주도한 교육개혁안에 대한 왕국유의 비판과 대안의 골자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경학과대학을 문학과대학으로 통합해야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문학과대학은 1.경학과 2.이학과 3.사학과 4.중국문학과 5.외국문학과(이 과의 경우 우선 영국·독일·프랑스 3국을 먼저 설치하고 이후 다

46)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論近年之學術界」: 近時之著譯與雜誌既如斯矣, 至學校則何如? 中等學校以下, 但授國民必要之知識, 其無與於思想上之事, 固不俟論. 京師大學之本科, 尙無設立之日, 卽令設立, 而據南皮張尙書之計劃, 僅足以養成咕嗶之俗儒耳. 此外私立學校, 亦無足以當專門之資格者. 唯上海震旦學校, 有丹徒馬氏(良)之哲學講義, 雖未知其內容若何, 然由其課程觀之, 則依然三百年前特嘉爾之獨斷哲學耳.

47) 王國維 著, 姚淦銘·王燕 編, 『王國維文集』第三卷(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7), 「教育偶感 四則」: 而哲學之與教育學之關係, 凡稍讀教育學之一二頁者, 生理學·解剖學之與醫學之關係乎, 世未有捨物理學·化學而言工學, 捨生理學·解剖學而言醫學者. 今欲捨哲學而言教育學, 此則愚所大惑不解者也.

48)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奏定經學科大學文學科大學章程書後」 참조. 王國維 著, 姚淦銘·王燕 編, 『王國維文集』第三卷, 「教育偶感 四則」, 60쪽: 夫探宇宙人生之真理而定教育之理想者, 固哲學之事業.

시 각국을 설치한다) 등 다섯 학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판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세 번째 주장으로 왕국유는 이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 학과의 교과과정에 반드시 미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학의 교과과정에 반드시 미학을 정규과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왕국유의 주장은 중국 근대 교육에 있어 최초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완전한 인간성의 발현을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필연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예술교육이 중심이 된 미적 교육이 정책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완전한 인간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던 왕국유에게 있어 미적 교육은 필수적인 조건이었다.⁴⁹⁾ 이와 관련해 1904년 왕국유는 이미 「文學與教育」에서 미적 교육이란 오랜 훈련 과정이 필요하므로 정규교과과정을 통해 장기간 훈련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⁵⁰⁾ 예술교육과 관련해 왕국유는 특히 문학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중학교 이상과정에 고전문학과목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후 중학교 이상에서는 마땅히 고전이라는 과목에 크게 힘을 써야 한다. 비록 이를 통해 예술에 있어서의 천재를 양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문학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취미를 갖게 한다면 공허함의 고통을 위로하고 비열한 기호를 막는 데 있어 그 유익함이 진실로 많기 때문이다. 이 말은 교육자가 크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⁵¹⁾

고전문학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왕국유주장의 목표는 예술적 천재의 양성이 아니라 일반인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문학이라는 고상한 취미를 통해

49) 王國維 著, 姚淦銘·王燕 編, 『王國維文集』第三卷(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7), 「論教育之宗旨」, 57-59 참조.

50) 周錫山 編校, 『王國維文學美學論著集』(山西: 北岳文藝出版社, 1988), 「文學與教育」52쪽: 夫物質的文明, 取諸他國, 不數十年而具矣, 獨至精神上之趣味, 非千百年之培養, 與一二天才之出, 不及此. 而言教育者, 不爲之謀, 此又愚所大惑不解者也.

51) 王國維, 『王國維遺書』第5冊, 『靜庵文集續編』(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去毒篇」: 故此後中學校以上宜大用力於古典一科, 雖美術上之天才不能由此養成之, 然使有解文學之能力, 愛文學之嗜好, 則其所以慰空虛之苦痛而防卑劣之嗜好者, 其益固已多矣. 此言教育者所不可不大注意者也.

삶의 위로를 찾게 하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예술과 관련된 그의 논의가 천재 등 특정한 소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다수의 일반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예술교육론이 궁극적으로는 대중성과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예술 중에서도 문학의 가치를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왕국유는 문학교육에 있어서도 특히 시 교육을 강조했다. 특히 시의 본질이 인간의 보다 내밀한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 왕국유는 『人間詞話』에서 境界說을 통해 詞의 소령이나 근체시의 절구 등 단편 서정시의 생명력은 ‘감정의 진정성’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인간의 감성과 도덕적 이성은 보다 효과적으로 함양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중국의 고전시과목이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⁵²⁾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소리의 아름다움 이외에 반드시 가사의 아름다움을 더해야 한다. 가사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자면 오늘날 작가가 직접 만든 곡은 옛사람의 뛰어난 작품만큼 명확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고인의 명작이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과 수준에 반드시 적합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시 가운데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옛사람의 행적을 노래한 것 역시 분명히 이러한 자료로서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성격(모습)을 지닌 채 아이들의 직관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도덕에 있어 추상적 교훈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다.⁵³⁾

문학 중에서도 특히 시를 강조하며 초등학교에 중국고전시 과목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 속에는 시 교육이라는 미적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내재된 미적 감정을 연마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보다 높은

52) 중국미학사에서 공자의 미학사상은 보통 禮와 樂으로 개괄된다. 이때 禮는 질서를 樂은 예술을 의미한다. 李澤厚·劉綱紀 主編, 『中國美學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년 참조.

53) 王國維 著, 姚淦銘·王燕 編, 『王國維文集』 第三卷(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7), 「論小學校唱歌科之材料」, 94-95쪽: 欲達第一目的, 則於聲音之美外, 自當益以歌詞之美. 而就歌詞之美言之, 則今日作者之自制曲, 其不如古人之名作審矣. 或謂古入之名作不必合於小學校育之目的與程度, 然古詩中之咏自然之美及古迹者, 亦正不乏此等材料, 以有具體的性質以呈於兒童之直觀故, 故較之道德上抽象之教訓, 反爲易解.

차원의 도덕적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예술교육의 보편성과 대중성에 대한 절실한 인식과 실천의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것은 禮(질서)와 樂(예술)을 중심으로 전개된 공자의 미학사상 혹은 美育사상과 오버랩되며 그의 예술교육론이 함양된 인격이라는 개인적 가치와 개인과 사회의 조화라는 사회적 가치 모두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 대학의 정규과목에 미학을 설치해야 한다거나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중국고전시를 배워야 한다는 왕국유의 주장 속에는 이미 그 안에 예술교육을 통한 인간감성의 도덕적 함양이라는 인문적 각성과 함께 예술교육의 대중화를 향한 실천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적 교육 혹은 예술교육의 대중화에 대한 그의 신념은 이후 그가 『人間詞話』에서 경계설을 통해 인간의 순수한 감정에서 발로한 평이하되 감동적인 작품을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했던 사실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문학, 특히 서정시를 강조한 왕국유의 예술교육론은 이후 5.4 신문화 운동 시기에 이르러 미학교육을 전개한 蔡元培의 교육사상을 통해 꽃을 피우게 된다.

5. 나가는 말

왕국유 교육사상의 중심내용은 ‘문학과 예술의 본질이 왜 감정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전개된 예술교육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과 인간을 주제로 쇼펜하우어에서 시작된 왕국유의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는 칸트와 쉴러를 만나며 인간성을 실현하는데 왜 예술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예술교육론을 완성하게 된다. 이에 본고는 왕국유 예술교육론에 나타난 주요논점을 인식론과 실천론의 관점에서 고찰해 그 주요 관점들을 재구성해 보았다.

먼저 2장과 3장은 예술과 감정의 상관성 및 문학과 감정의 상관성에 대한 왕국유의 인식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고는 왕국유가 예술과 감정의 인간학

적인 이해 위에서 그것들의 인문적 가치에 집중하면서 미적 교육 중에서도 특히 예술교육을 강조했다. 아울러 예술교육 중에서도 그가 문학교육, 특히 서정시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도 확인했다. 예술과 감정의 상관성 및 문학의 인문적 가치에 대한 논의인 2장과 3장이 예술교육과 관련된 왕국유의 이론적 탐구라면 대학의 커리큘럼에 미학과목을 정식으로 설치하고 소학에서 중국고전시를 가르쳐야 한다는 4장의 주장은 예술교육과 문학교육의 대중화·사회화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왕국유의 예술교육론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술교육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그의 근대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왕국유는 예술을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그 자체에 인간성의 실현을 돕는 형이상학적 가치를 지닌 어떤 것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문학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이야말로 인간 개개인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숭고한 도덕적 감각을 각성하고 함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통로라고 믿었다. 즉, 왕국유는 어떠한 외부적인 강제나 의무로부터 비롯되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규율보다 인간내부의 감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로되는 미적 경험과 그에 대한 성찰을 기초로 함양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통해 인간은 비로소 완성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 위에서 예술교육과 관련된 주장을 통해 자신의 교육적 신념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감정과 미 혹은 예술 자체에 내재된 순수하고 숭고한 의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의 특성, 나아가 이들 관계 사이에 내재하는 인문적인 가치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강조했다. 이는 바로 왕국유 예술교육론의 근대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왕국유 사유의 상당부분은 칸트와 셸러의 철학과 미학에 빚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그의 예술교육론에서 예술교육의 대중화·사회화를 강조한 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논고 중 하나가 바로 1907년에 발표된 「古雅之在美學上之位置」이다. 여기에서 왕국유는 古雅라는 자신의 독자적인 미학개념을 제시하며 古雅의 중요한 가치와 기능이 예술교육을 보

급하기 위한 교량임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필자의 검토에 따르면 왕국유의 *古雅論*은 그의 예술교육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으로 예술교육의 대중화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의 결과물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후 과제로 남겨둔다. 왕국유 예술교육론의 주요논점을 밝힌 본 작업의 연구결과는 향후 그의 문학이론과 예술교육론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인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王國維 著, 『王國維遺書』全16冊, 上海: 上海古籍書店, 1983.
- _____ 著, 姚淦銘·王燕 編, 『王國維文集1-4』,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7.
- _____ 著, 周錫山 編校, 『王國維文學美學論著集』, 山西: 北岳文藝出版社, 1988.
- _____ 著, 馬自毅 注譯, 高桂惠 校閱, 『新譯人間詞話』, 臺北: 三民書局, 1983.
- _____ 著, 蔭咸惠 校注, 『人間詞話新注』(修訂本), 濟南: 齊魯書社, 1991.
- _____ 著, 蔭咸惠 譯評, 『人間詞話』,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7.
- _____ 著, 류창교 역주, 『세상의 노래비평』, 서울: 소명출판사, 2004.
- _____ 著, 楊揚 校訂, 『宋元戲曲史』,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5.
- _____ 著, 佛雛 校輯, 『王國維哲學美學論文輯佚』,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3.
- _____ 著, 佛雛 編, 『王國維學術文化隨筆』,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96.
- _____ 著, 干春松·孟彥弘 編, 『王國維學術經典集』,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97.
- _____ 著, 傅杰 編校, 『王國維論學集』,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 _____ 著, 吳澤 主編, 『王國維全集·書信』, 北京: 中華書局, 1984.
- _____ 著, 劉剛強, 『王國維美論文選』, 湖南: 湖南人民出版社, 1987.
- 吳澤 主編, 袁英光 選編, 『王國維學術研究論集(一)』,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3.
- 吳澤 主編, 袁英光 選編, 『王國維學術研究論集(二)』,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7.
- 吳澤 主編, 袁英光 選編, 『王國維學術研究論集(三)』,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0.
- 佛雛 著, 『王國維詩學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7.
- 葉嘉瑩, 『王國維及其文學批評』,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7.
- 祖保泉·張曉雲 著, 『王國維與人間詞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 聶振斌 著, 『王國維美學思想述評』, 遼寧大學出版社, 1986.

- 盧善慶 著, 『王國維文藝美學觀』,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88.
- 蔣永青 著, 『境界之眞: 王國維境界說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 王德毅 著, 『王國維年譜』,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67.
- 趙萬里 撰, 『王靜安先生年譜』, 臺北: 廣文書局印行, 1971.
- 蕭艾, 『王國維評傳』,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7.
- Joey Bonner, 『Wang Kuo-wei』, An Intellectual Biography, Harvatd University Press, 1986.
- 夏中義 著, 『世紀初的苦魂』,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95.
- 陳鴻祥 著, 『王國維傳』, 北京: 人民出版社, 2004.
- 陳鴻祥 著, 『王國維年譜』, 濟南: 齊魯書社, 1991.
- 周一平·沈茶英 著, 『中西文化交匯與王國維學術成就』, 上海: 學林出版社 1999.
- 류창교 著, 『王國維 評傳』,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5.
- 佐藤武敏 著, 『王國維の生涯と學文』, 東京: 風間書房, 2003.
- 呂慧鵠·劉波·盧達 編, 『中國歷代著名文學家評傳: 第6卷(近代)』,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5.
- 雷紹鋒 著, 『王國維讀書生涯』,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1997.
- 袁英光 著, 『王國維評傳』,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9.
- 李澤厚·劉綱紀 主編, 『中國美學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 李澤厚·劉綱紀 主編, 權德周·金勝心 共譯, 『中國美學史』,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 칸트 著, 李錫潤 譯, 『判斷力批判』, 서울: 博英社, 2001.
- 김광명 지음, 『칸트 판단력 비판 연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 먼로 C. 비어슬리 著, 이성훈·안원현 옮김, 『미학사』, 서울: 이론과실천, 1995.
- 프리드리히 쉴러 지음, 안인희 옮김, 『인간의 미적교육에 관한 편지』, 서울: 청하, 1995.
- 李哲理, 『人間詞話 研究』, 경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洪在玄, 『王國維 文藝美學理論 研究』, 광주: 全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4.
- 柳昌嬌, 『王國維의 文藝美學理論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_____, 『王國維 文藝批評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車泰根, 『王國維의 審美的 思惟와 批評 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줄고, 『王國維 境界說 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줄고, 『王國維의 文體論 고찰』 『中國語文論叢』 제61집, 서울: 中國語文研究會, 2014.
- 莫小紅, 『席勒与20世紀上半葉中國美育思潮』, 長沙: 湖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
- 尙蓮霞, 『王國維美育思想及其現代意義』, 南京: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 趙曉冬. 『王國維美育思想的精神內核及其當代價值』, 貴州: 貴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 陳彬. 『20世紀早期中國美育思想探析』, 廣州: 華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劉曉峰. 『王國維與蔡元培美育思想比較研究』, 重慶: 西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潘吉英. 『無用之用—王國維美育思想述評』, 廈門: 廈門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 張繼娟. 『人性的墮落與拯救』, 開封: 河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 張艷秋. 『王國維美育思想之育情論初探』, 長春: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 김광명, 「칸트에 있어 미와 도덕성의 문제」 『칸트연구』 제2집, 서울: 한국칸트학회, 1996.
- 김광명, 「감성과학에 대한 철학적 논의」 『감성과학』 제1집, 서울: 한국감성과학회, 1998.
- 김광명, 「칸트미학에 있어 '숭고(崇高)'의 문제」 『美學』 제17집, 서울: 한국미학회, 1992.
- 김광명, 「칸트미학의 인간학적 조건」 『美學』 제13집, 서울: 한국미학회, 1988.
- 김광명, 「칸트에 있어 감정과 미적 판단의 문제」 『美學』 제11집, 서울: 한국미학회, 1986.
- 김광명, 「예술교육의 근거로서의 미학」 『美學』 제51집, 서울: 한국미학회, 2007.
- 김광명, 「Schiller 미학에 있어서 '인간학적 평가'의 의미」 『哲學』 제26집, 서울: 한국철학회, 1988.

〈中文提要〉

王国维是最早引入欧洲近代美育理论并对其进行深入思考和阐发的中国学人,也是最早倡导美育并把美育列为培养“完全之人物”的“四育”之一的中国学人。他的美育思想是以中国传统的美育思想作为其深厚的土壤,并借鉴西方哲学、美学、美育学、教育学、心理学思想而形成的。强调“学术独立”是王国维学术思想的基本精神,这一基本精神体现在其美育思想上即是强调美育的独立性。从理论角度看,其美育思想内容丰富,体系严密,可谓中国近代美育思想的开端,具有重要理论价值。从实践角度看,王国维的美育思想对现代社会中人类如何摆脱精神困境及如何培养完整人格仍有重要的启示作用。学界对于王国维的美育思想的论述基本上只关注其各个方面自身的内涵和意义,对其内在的联系却缺乏应有的热情和关注。因此,本稿试图就王国维美育思想形成的文化渊源,来探询他的美育思想的理论来源及理论的主要观点。因此,本稿对王国维的美育思想进行了反思,并以此作为出发点,考察了王国维的美育思想所具有的主要论点及其近·现代意义。为了探讨这一点,本稿从认识论与实践论的角度出发,对王国维的美育思想论稿和他的艺术教育论进行了较为具体的分析,通过上述考察,本稿可以归纳如下结论。第一,王国维首先关注艺术和感情以及他们之间的相关性,

并在康德和席勒的美学基础上探索其所含的人文价值。所谓王国维追求的人文价值指的就是人可以在艺术活动中得到的理性和感情上的平衡上更容易体现出完全之人性。第二，王国维特别注重文学的人文价值，并且特别强调抒情诗的人文价值。第三，王国维在上述的理论基础上探索了自己美育思想的实现方案。他提出的那些方案如下。首先，他主张中国大学该设置美学课程，他还主张中国小学也该设置中国古典诗歌课程。总之，王国维的美育思想是中国近代美育思想的开端。他以外化内、中西交融，运用西方先进的理论、科学的思维方法，结合中国传统美育思想，独创性地建立了自己的美育理论，其中有许多观点是值得探索。

關鍵詞: 王国维, 美育思想, 艺术教育, 感情, 文学, 抒情诗, 人文价值

이 논문은 2016년 1월 17일에 접수되어 2016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